

# 국회 탄핵소추단 “2월 내 결론”...尹 지연전술 차단 총력

심리 준비 속도...“1월 중순에는 변론 시작돼야”  
尹 강성지지층 ‘탄핵 반대’ 여론전에 ‘예의주시’  
“확실한 증거”로 대응, 탄핵 인용 이끌어낼 것”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27일)을 앞두고 심리 준비에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윤 대통령 측의 지연전술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 탄핵소추단은 정청래 국회의 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됐고 대리인단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17명으로 꾸려졌다. 소추단·대리인단은 주 2회 안팎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이 모두 완료되면 수시로 만나 재판 준비를 하기로 했다.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주장하는 민

주당은 내년 1월 중순 이전 본 심리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추단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변론 준비 기일이 두세 차례 열리면 본 심리인 변론 기일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 거부나 대리인 선임을 늦추고, 변론 준비 기일 불출석 및 연기 요청 등을 통해 탄핵심판 개시를 고의로 지연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고심 중이다. 실제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내란 수괴’로 지목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현재가 우편과 인편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와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등도 접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탄핵소추단·대리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 않는 상황이다. 소추단 관계자는 “정국 불안이 심화하는 데 일정이 지연될까 걱정”이라며 “변론을 주 2-3회 진행하는 등 최대한

속도를 낼 경우 내년 1월 중순에는 본 심리가 시작돼야 2월 말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소추단은 윤 대통령 측이 여론전을

통한 ‘역공’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하며 긴장의 끈도 늦추지 않고 있다. 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위헌·불법성이 명확한 만큼 탄핵안이

무난하게 인용될 것으로 보지만, 윤 대통령 측이 강성 지지층을 향해 ‘탄핵 반대’ 여론전에 나선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데 이어, 윤 대통령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정치인 등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등의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소추단은 ‘확실한 증거’로 대응해 탄핵 인용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소추단은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등이 수집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 내란·국헌문란 소지 등을 입증하는 진술과 증거를 전방위로 수집, 탄핵의 당위성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형사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 없이 행위의 정당성만 주장하면 양형이 극도로 세지지 않나”라며 “계엄의 위헌성이 너무나 자명하고 일반 상식과 동떨어졌다는 점을 잘 설명해 변수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 선관위, ‘輿의원 내란공범’ 현수막 허용

‘이재명은 안돼’는 불허 “특정인 겨냥 사전선거운동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

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는 입장이다.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254조는 평상시에도 적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내란공범’은 물론 ‘이재명 방탄’, ‘재명야 감방가자’, ‘이재명을 구속하라’와 같은 단순 정치 구호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 ‘계엄사태 국조특위’ 명단 제출...輿 “시간 더 달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계엄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11명을 확정해 우원식 국회의장에 제출했다. 안규백 의원이 위원장을, 같은 당 한

병도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추미애·민홍철·김교흥·백해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

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별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국정조사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위 명단을 이날 제출하지 않았다. 국정조사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진수 기자

## 국힘 24% vs 민주당 48%...尹정부서 양당 지지율 격차 최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격차로 국민의힘 지지도를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지난 2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24%, 민주당은 48%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8%p 올랐고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었다.

한국갤럽은 “민주당 지지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동일한 최저치로 양당 격차가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의 의정 및 단체 1%로 조사됐고, 지지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은 21%로 나타났다. ‘장래 대통령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재명 대표가 3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5%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3%, 오세훈 서울시장·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인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연합뉴스

## 국힘 비대위원장 인선 놓고 ‘갈팡질팡’

5선 권영세·김기현·나경원...원의 유승민 물망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 이후 일주일째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와 따로 선임하는 ‘투톱’ 체제에는 가다가 잡혔으나 비대위원장에 누가 적임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당 내부에서는 경험 있는 현역 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5선인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이들이 갖춘 당 운영 능력과 별개로 각자 ‘탄핵 반대’에 앞장섰거나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짙다는

점이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비대위가 당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 개혁적인 성향의 원외 인사가 구원투수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당에 오래 몸담았던 유승민 전 의원이 여론 일각에서 거론되는 이유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이 당의 모습이 완전히 망하는 코스로 가고 있다”며 “저는 정말 바꾸고 싶다. 이 당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엄청 강하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최무송 의장	임종국 부의장	고영임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한양임 의원 (행정자치위원장)	김귀성 의원 (경제복지위원장)	이숙희 의원 (안전도시위원장)	최기영 의원	김영순 의원	주순일 의원	김건안 의원

올 한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도 변함없이 구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기대서 의원	전미용 의원	강성훈 의원	정상용 의원	손혜진 의원	황예원 의원	정달성 의원	정재성 의원	신정훈 의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